

## 권영창 회장 운곡서원 방문 취임 고유제 봉행

### 시조 태사공 배향된 운곡서원 대중회 회장 첫 공식방문



권영창 회장은 6월 10일 오전 10시 시조 태사공이 배향되어 있는 경주 운곡서원을 권갑현 편집위원장과 권중수 상임위원, 권행완 편집국장과 함께 대중회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했다. 권오신 운곡서원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권혁무 전 운곡서원운영위원장, 권혁성 연일향교 전교, 권혁운 전 연일향교 전교, 권영호 종무위원, 권한옥 이사, 권원수 박사와 서울과 부산에서 취임고유제 소식을 듣고 온 권영복 부회장과 권용진 교문 등 30여명은 권영창 신임 회장을 열렬히 환영했다.

권오신 운곡서원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은 먼저 운곡서원은 전국에서 시조를 모시는 유일한 서원으로 1784년에 지었다. 제향공간인 경덕사에서 시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배향하고 죽림공과 귀봉공의 위패를 동 서벽에 봉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혁성 연일향교 전교 등 참석자 전원을 한 사람 한사람씩 소개하고, 권영창 회장의 약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권영창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 때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되었다. 종사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10여 년간 영주종친 회장을 지냈으며 대중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대외적으로는 영주시장을 역임하여 영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 앞으로 대중회를 위해 크게 활동하여 빛내 주시리라 믿는다. 운곡서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다. 권오신 위원장은 권영창 회장에게 자신이 직접 집필한 책 '좌운공 사람들'을 선물했다. 이에 권영창 회장은 환영해 주시니 고맙다. 각종

단체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대중회 회장 임무수행을 할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부담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안동권씨 1100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의욕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죽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중회 조직표를 보니 교문,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여 대중회 기구표를 작성하고 있다. 1100년의 역사적인 과업을 위해 능동성추진위원회 등 특별기구도 만들고 위원으로 몇 십 명씩 배치도 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죽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필요하다. 몇 일 전에 원주종친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100만 죽진이라고 하는데 임원만 있지 회원이 없다고 말했다. 회원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종보 구독하는 분을 회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모두 회원으로 되어 주시라고 부탁했더니 모두 동의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찾아 왔다. 죽진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오신 운영위원장은 권영창 회장을 시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하고 죽림공과 귀봉공을 배향하고 있는 경덕사로 안내하여 권영호 종무위원의 집례로 취임고유제를 봉행했다.

권오신 위원장은 취임 고유제를 마치고 운곡서원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수령 300여년이 된 압각수 은행나무로 권영창 회장을 안내하여 은행나무와 갈산공(葛山公, 권종락權宗洛)에 얽힌 특별한 이

야기를 전해 주었다. 갈산공이 단종 사화로 죽은 충신들이 모두 복권되고 증직이 되었는데 유독 자신의 12대조 선조(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만 누락된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한양에 올라가 격쟁하여 정조의 어가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였다. 이로서 죽림공은 1789년 드디어 신원되어 순흥 금성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갈산공은 교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에 순흥 금성대군 신단(사적 제491호)에 들러 고유하고, 금성단 옆 수령 1100여년이나 되는 은행나무 가지를 꺾어 행랑에 놓고 고향으로 향했다. 귀향길에 예전의 죽림공 산소에 들러 신원(伸冤)된 사실을 고유하고 한 달이 넘어서야 운곡서원에 도착했다. 갈산공이 나무껍질이 말라버린 압각수를 꺼내져 친족들은 "은행나무가 살아날 리 없다"고 했다. 이에 갈산공은 크게 화를 내며 "죽림 선조의 충절이 드러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심었다. 그런데 이듬 해 봄 은행나무는 갈산공의 예언처럼 놀랍게도 정말 기적같이 새잎이 났다. 이 나무가 그 은행나무라고 설명했다.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어찌나 고운지 가을이면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아 다 못 들어 올 정도라고 말했다. 갈산공은 경주 강동면 국당에서 1745년 태어나 영의정이었던 변암(樊巖) 체재공(蔡濟恭, 1720~1799)과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등 당대의 문신들과 교류했던 이름 난 선비였다. 후손들은 2006년에 갈산공의 기적비(紀蹟碑)를 은행나무 바로 앞에 세워 사적을 기리고 있다.

권오신 운영위원장은 권영창 회장을 유연정(悠然亭,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345호)으로 안내하여 유연정에 대해 설명했다. 유연정은 1811년(순조11년)에 세워졌다. 유연정이라고 하는 정자 이름은 도연맹의 시 "彩菊東籬下 秋菊동리하 悠然見南山 유연견남산"에서 가져왔다.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다가 물그리미 남산을 바라보노라"라는 말이다. 또 유연정의 모습은 중국 북송의 유교 사상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광풍제월(光風霽月)의 정신을 나타내도록 지었다. 광풍제월은 맑은 날의 바람과 갠 날의 달이라는 의미로, 심성이 맑고 깨끗한 인품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유연정은 도연맹의 유연과 주돈이의 광풍제월 사상이 단종이모부인 죽림공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회 역사상 시조 태사공이 배향된 운곡서원에서 최초로 대중회 회장 취임 고유제를 마친 권영창 회장과 권오신 운영위원장 등 일행은 경주종친회로 이동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권영창 회장 시조 태사공 묘소에 취임 고유제 봉행



권영창 회장은 6월 5일 오전 10시 안동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권기갑 부회장,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중수 상임위원, 권오익 사무국장, 권혁창 북야공과 대구파친회장, 권영건 보도부장, 권행완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익 사무국장의 집례에 따라 제19대 대중회 회장 취임 고유제를 봉행했다. 축문은 권기갑 부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독축했다.

고유문에서는, "제19대 대중회 회장으로서 부족한 줄 알면서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명령을 명심하고 죽진들의 뜻을 집약하고 권문 전체를 화합하는 일을 도맡아 수행하겠습니다. 앞드려 바라는 것은 존명께서 강임하시어 흥향하십시오. 계절의 과일과 한 잔의 술로 감히 정성을 담은 마음으로 고합니다"라고 고유했다.

이어서 낭중공 단소에서 헌작하였고, 안동시 송현동에 자리하고 있는 북야공과 파조 묘단으로 이동하여 100만 죽진의 회장으로 추대되어 막중한 소임을 다 할 것을 엄숙하게 고유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2023年 7月 임원 회비 및 찬조금 납부 내역

<b>&lt;찬조금&gt;</b>			
권영달 교문	200,000		
<b>&lt;임원회비&gt;</b>			
<b>부 회장</b>		<b>종무위원</b>	
권중수(영주)	1,000,000	권영호(포항)	200,000
권무탁(영주)	1,000,000		
권영호(서울강남)	1,000,000		
<b>이사</b>			
권순식(대구)	300,000		
권범준(서울은평)	300,000		
권경호(대구)	300,000		
권혁조(權赫朝, 충주)	300,000		
		<b>합계 : 4,600,000원</b>	
		<b>※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b>	

안동권씨대종회

##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창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제19대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었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죽진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중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 농협 :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

##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유익한 안동권씨 종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보는 매월 1일 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구독 희망자는 이메일 andongkwonmun@daum.net 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거나 대중회로 전화해 주시면 즉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료는 1년에 3만 원입니다.

종보 발전을 위해 기금이나 광고 등으로 협찬하실 분은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진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033237-04-006772)

안동권씨 대중회